

볼록 풍선껌

이정란 글 | 모루토리 그림



다산어린이 공식 카페

책을 더 재미있게, 책을 더 오래 기억하는 방법

다산어린이 공식 카페에는 다양한 독서 활동 자료가 있습니다.
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독서 흥미를 더욱 키워 주세요.



● 교과 연계 단원

- [국어] 1학년 1학기 6단원. 또박또박 읽어요
- [국어] 1학년 2학기 4단원. 감동을 나누어요
- [국어] 2학년 1학기 7단원. 마음을 담아서 말해요
- [국어] 2학년 2학기 8단원. 나도 작가
- [국어] 3학년 2학기 9단원. 작품 속 인물이 되어
- [도덕] 3학년 6단원.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

● 키워드

#반려동물 #생명 #이별 #친구 #우정

● 책 소개

풍선껌이 이어 준 어린이와 야생 다람쥐의 특별한 우정!

하루는 햄스터를 키우고 싶었는데 엄마는 반대만 해요. 화가 나니까 시원한 아이스크림 생각이 났지요. 편의점에 갔더니 계산대에 못 보던 할머니가 있었어요. 그 할머니 얼굴이 꼭 다람쥐를 닮았어요. 딱 하나 남았다는 할머니 말에 홀린 듯이 아이스크림 대신 풍선껌을 샀어요. 볼록 풍선껌? 껌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. '떡갈나무 벤치 아래에서 말풍선이 팡팡!' 하루는 조금 망설이다가 피아노 학원을 내팽개치고 숲으로 향했어요. 곧이어 떡갈나무에서 데굴데굴 굴러온 야생 다람쥐 한 마리! 둘이서 같이 풍선껌을 씹었더니 갑자기 속마음이 팡팡 터지지 뭐예요? 다람쥐 이름이 볼록이래요, 글썄! 풍선껌이 이어 준 하루와 볼록의 특별한 우정, 그 세 번의 만남과 씹직한 헤어짐이 숲에서 펼쳐집니다!

활동①

『볼록 풍선껌』은 어떤 책일까?

『볼록 풍선껌』의 표지예요. 제목과 그림 등을 잘 살펴보고,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자유롭게 상상해 써 보세요.



활동② 신기한 풍선껌

하루와 볼록은 풍선껌으로 대화를 나눕니다. 볼록 풍선껌은 풍선이 팽팡 터질 때마다 속마음이 들리거든요. 내가 작가라면, 또 어떤 풍선껌을 만들어 보고 싶나요? 상상력을 발휘해서 신기한 풍선껌을 떠올려 보고 빈칸에 써 보세요.

넌 뭘 좋아해?
난 까먹기랑
놀이.

까먹기?
난 그냥
놀이!



내가 만들고 싶은 풍선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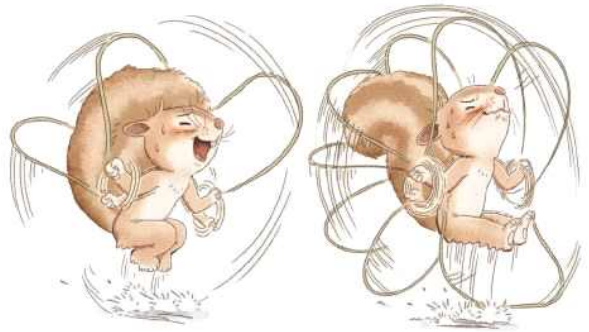


활동③
하루와 볼록이 노는 법

하루와 볼록이 숲에서 함께한 놀이는 무엇일까요? 아래에서 둘이 함께한 놀이를 찾아 O인지 X인지 표시해 보세요.



나무 타기 (O / X)



넵쿨 돌려 넘기 (O / X)



아몬드 찾기 (O / X)



도토리밭침 돌리기 (O / X)

활동④

야생 동물과 친구 되기

이 책에는 숲에 사는 다람쥐 볼록이 등장해요. 하루는 처음엔 다른 친구들처럼 집에서 햄스터를 키우고 싶어 하지만, 볼록을 만난 뒤론 자연에서 사는 동물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. 다람쥐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야생 동물이 많이 있어요. 내가 친구가 되고 싶은 야생 동물이 있다면, 이름을 써 보고 그림으로 그려 볼까요?

내가 친구가 되고 싶은 야생 동물은?



활동⑥ 생명을 대하는 마음

아래 글을 보면 동물을 대하는 민아의 태도는 어떤 것 같나요?

“민아야, 너 진짜 그 강아지 살 거야? 그럼 네 햄스터는 어찌고?”

“햄스터야 뭐, 사촌 동생들 키우라고 주면 그만이지. 난 이 비송 꼭 살 거야.”

“그거 되게 비싸대. 백만 원도 더 넘는다던데…….”

“당연히 그렇겠지, 예쁘니까. 근데 우리 아빠는 사 주실 거야.”

하루는 헛웃음이 나왔지요. 물을 틀어 손을 박박 닦은 뒤 화장실을 나왔어요.

“쳇, 햄 없이 살아도 햄스터 없이는 못 산다고 할 땐 언제고…….”

하루는 그런 민아가 알미웠어요. 햄스터 키우기 전에 민아는 달팽이도 키웠거든요. 달팽이 아파트 화단에 버리는 거 하루가 다 봤어요. -《볼록 풍선껌》 49~50쪽



민아는 동물을 대할 때,

아래 글을 보면 동물을 대하는 하루의 태도는 어떤 것 같나요?

볼록이 몸을 들썩이며 웃었어요. 하루는 그렇게 웃는 볼록이 참을 수 없이 귀여웠어요. 품에 와락 안고 싶었지요. 그렇지만 조금 조심스러웠어요. 햄스터 동동이도 그랬거든요. 지저분한 손으로 만지면 안 됐어요. 균이나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도 있어서요. (중략)

‘한번 살짝 만져 보면 안 될까?’

하루는 오른손으로 볼록의 꼬리 끝을 살짝 쓸고는 쥘쥘하게 뛰어갔어요. -《볼록 풍선껌》 73~74쪽



하루는 동물을 대할 때,

활동⑥ 만남과 헤어짐

하루와 볼록의 만남은 행복했지만, 곧 헤어질 때가 되었어요. 야생 다람쥐 볼록은 겨울잠을 자야 하거든요. 이별을 앞둔 하루의 상태로 웁은 것을 모두 골라 선을 이어 보세요.

① 볼록과
헤어지게 되어서
눈물이 나고 슬프다.

② 불어닥친 속바람,
하필 걸린 독감,
절대 못 나가게 한
엄마 때문에 서럽다.

③ 날씨가 추운데
자신을 기다렸을
볼록에게 미안하다.



④ 볼록이 겨울잠을
자러 가기 전에
좀 더 같이 있고 싶다.

⑤ 이대로 헤어질
수는 없으니 볼록을
집에 데려가야겠다고
마음먹는다.

⑥ 꽃바람이 불면
볼록과 다시 만날 수
있을 거라고 믿는다.